

# 나루히토 일왕 즉위 “세계평화 간절히 희망”

1일부터 레이와 시대 개막  
현행 평화헌법 수호 언급 없어  
10월까지 4차례 축하 향연

러분과 함께 헌법을 지키고 평화와 복지 중진을 희망한다”며 헌법 수호의 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민대표로 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덴노 헤이카(天皇家下 나루히토 새 일왕을 지칭)를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고 말했다.  
‘조현 의식(朝現の儀)’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지요다구 교토 내의 규텐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레이와’(令和)를 연호로 선택한 나루히토 새 일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겐지토 쇼케이노 기’로 불리는 첫 즉위 행사를 치렀다.

약 10분간 진행된 이 의식은 청동검과 청동거울, 굽은구슬 등 이른바 ‘삼종신기(三種の神器)’로 불리는 일본 왕가 상징물 중 일부를 새 일왕이 넘겨받는 행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검은 나고야시의 아쓰타(熱田) 신궁에, 이날 의식에 등장하지 않은 거울은 미에(三重)현의 이세(伊勢) 신궁에 보관돼 있다.  
이 의식에는 나루히토 새 일왕 동생으로 이날부터 왕세제가 된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후미히토(文仁·53), 작은 할아버지인 히타치노미야(常陸宮) 마사히토(正仁·83·왕위계승 서열 3위) 등 왕위계승권이 있는 성인 남자만 참석했고, 여성 왕족은 배제됐다.

나루히토 새 일왕은 즉위 후 첫 일반 국민의 축하 인사를 받는 ‘잇판산가’(一般参賀) 행사를 오는 4일 치르고, 8일에는 교쿄(皇居) 내 신전 3곳인 규추산덴(宮中三殿)을 참배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 10월 22일 새 일왕 즉위를 대내외에 알리는 피로(披露) 의식을 열고,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대규모 축하 향연을 4차례에 걸쳐 마련한다.  
아베 총리 부부가 주재하는 축하 만찬 행사는 10월 23일 5성급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별도로 열린다.  
10월 22일 도쿄 도심(교쿄-아카사카)에서는 새 일왕 부부의 카퍼레이드 행사가 펼쳐진다. /연합뉴스



나루히토 새 일왕이 1일 일본 왕궁에서 열린 즉위 행사에서 ‘삼종신기(三種の神器)’로 불리는 일본 왕가 상징물 중 일부를 넘겨받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126대 나루히토(德仁·59) 새 일왕은 1일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즉위 후 첫 소감(오코토바·お言葉)으로 세계평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는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11월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9조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정상국가화’를 내세우며 전격으로서의 자위대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대신(장관)과 지방단체장 등 국민대표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밝힌 즉위 소감을 통해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과 역대 일왕들의 행보를 생각하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 국가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퇴위한 아키히토 전 일왕이 1989년 1월 9일 즉위 후 첫 소감으로 “여

## 미중 무역전쟁에 동아시아 경제전망 ‘먹구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지난해보다 줄어든 성장률 제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보고서를 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1%로, 내년 성장률은 5.0%로 각각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5.3%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다.  
AMRO의 국내 경제권은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역내 경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무역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관련 추가 위험은 (이번 전망치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2위 경제권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6.6%에서 올해 6.3%로, 내년 6.2%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AMRO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모두 2.6%를 제시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가하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AMRO는 “하방 위험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인 면에서 협상 상태에 안주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각국 정부 당국에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재정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재조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아시아의 물가상승률은 작년 2.0%에서 올해 2.1%로 높아졌다가 내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AMRO는 전망했다.  
AMRO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역내 경제성장률이 향후 2년간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미중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미국과 중국이 1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맞이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만나 덕담을 교환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을 향해 가고 있다. 앞서 양측은 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뒤 상당한 진전을 희망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류 총리는 전날 미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존망 중국 30~40대가 결정한다

전체시장 32% 중국서 소비

향후 몇 년간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존망은 중국 30~40대의 취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는 1일 발간한 2019년 중국 사치품 보고서 통해 중국 젊은 세대의 강렬한 자기 차별화 욕구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글로벌 명품의 전체 소비 2조4천60억 위안(약 346조400억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7천770억 위안(약 134조4400억원)을 중국 소비자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2012년 전체 소비 1조7790억 위안 가운데 18.7%인 3340억 위안을 책임졌다는 사실과 비

교할 때 상당히 늘어난 비중이다.  
글로벌 명품소비에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는 전체 3조 1170억 위안 가운데 1조2270 위안으로 3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맥킨지는 중국인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명품소비 증가액의 65%를 책임질 것이라는 추세를 주목했다.  
이처럼 중국이 견인하는 글로벌 명품소비 증가세의 중심에는 1980년,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포진하고 있다.  
중국 명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31%,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50%가 명품소비를 2018년에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 자유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해 군사 봉기를 촉구하며 일부 군인들과 길거리로 나섰다 소식에 전해진 이후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그들의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

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오늘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자유’의 작전’ 개시를 발표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완전히 지지한다. 민주주의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썼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 군은 헌법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강탈에 맞서 국회와 합법적 당국을 지지해야 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에 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서 총격 사건 최소 2명 숨져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졌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이 대학 샬럿 캠퍼스의 행정동 인근에서 용의자가 권총으로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4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현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는 전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 측은 건물을 폐

쇄했으며, 학교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두 손을 올린 채 캠퍼스 건물을 뛰쳐나오는 대학생들과 총격이 벌어진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동기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역 방송인 WSOC-TV 등은 총격범이 이 대학에 다니는 22살 학생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